

# 반어와 역설

---

# 일상어에서 사용 되는 '아이러니'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벌써 벚꽃엔딩이다. 벚꽃으로 유명한 곳으로는 진해 여좌천, 하동 쌍계사, 대전 신탄진, 청주 무심천, 서울 여의도 등이 있다. 이들 공통점은 일본산 왕벚나무가 대규모로 식재된 곳들이다. 이러한 곳에서의 벚꽃 축제를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는 벚나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리 많이 심어져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물론 벚꽃의 아름다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본이라면 무조건 싫은 감정이 앞서고 반일, 극일을 외치는 민족이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벚꽃에 대해서는 유난히 너그럽다는 것이 아이러니 했다.

뉴스 정확도 · 최신

1-10 / 약 129,000건

관련뉴스 달기

검색옵션 ^

기간전체 v

언론사전체 v

초기화 ↺ ×



**경쟁사가 기다리는 신약, 9천억 시장 '아이러니'** 2021.04.07 | 뉴시스 | 다음뉴스

PPK(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가진 제약기업들이 경쟁사의 경쟁 신약 출시를 기다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이형주의 라리가 사군통] '패스 69.9개' 비아레알 파레호, 아이...**

2021.04.03 | 에스티엔 | 다음뉴스

이형주의 라리가 사군통]. 60번째 이야기: '패스 69.9개' 비아레알 파레호, **아이러니**한 이적 후에도 핵심 다니 파레호(31)는 **아이러니**한 이적 이후에도 핵심이 됐다...



**박훈정 감독 '낙원'과 '밤'의 아이러니 우아하고 처절하게 담아**

2021.04.02 | 뉴시스 | 다음뉴스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제목 그대로 행복한 '낙원'과 어두운 '밤'이라는 **아이러니**를 우아하고 처절하게 그려냈다. 박 감독은 "낙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롭고...

↳ '낙원의 밤' 감독 "아름다운 낙원에서 벌어지는 비..." 2021.04.02 | 스포츠조선 | 다음뉴스

↳ '낙원의 밤' 박훈정 감독 "제목, **아이러니**한 것이 ..." 2021.04.02 | 문화뉴스



**박훈정X염태구X전여빈 '낙원의 밤', 아이러니의 미학**

2021.03.29 | 일간스포츠 | 다음뉴스

어떤 이야기를 그려나가게 될지 호기심이 모이고 있다. "배경과 스토리가 주는 **아이러니**를 각각의 입장에서 흥미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작품을 소개한 박훈정...

↳ '**아이러니**의 美', 염태구X차승원X전여빈 '낙원의 ...' 2021.04.02 | 텐아시아 | 다음뉴스

↳ [종합] 염태구X전여빈X차승원 '낙원의 밤', **아...** 2021.04.02 | 브레이크뉴스

**벚꽃사랑의 아이러니** 2021.04.06 | 충청일보

민족이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벚꽃에 대해서는 유난히 너그럽다는 것이 **아이러니** 했다. 그래서 벚나무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았다. 벚나무는 비교적 피해를...



**'낙원의 밤' 메인 포스터 공개... 아이러니의 미학이 만든 감성 누아르**

2021.03.29 | 마이데일리 | 다음뉴스

어떤 이야기를 그려나가게 될지 호기심이 모이고 있다. "배경과 스토리가 주는 **아이러니**를 각각의 입장에서 흥미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작품을 소개한 박훈정 감독...

↳ '낙원의 밤' 메인 포스터 공개...**아이러니**의 미학이... 2021.03.29 | 한국사진방송



**[SW의눈] BLM 운동하는 리그 팬들이 '아시아인 혐오' 하는 아이...**

2021.04.12 | 데일리스포츠월드

앞장서서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있는 손흥민이 SNS에서는 인종차별 피해를 봤다. **아이러니**, 그 자체다. ◆팬유 팬의 충격적 행보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팬유의 팬들이 인종차별...

# 극적 아이러니(dramatic irony)

---



# 반어(irony)의 어원

---

변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이로네이아(eironeia)'에서 유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기만적인 인간과 진실한 인간을 나눠서 설명한다. 그 중 전자의 종류는 자신을 실제 이상의 존재로 가장하는 인간(알라존, Alazon)과 자기를 실제보다 낮추어 말하는 인간(에이런, Eiron)이다. 고대 희극은 이 두 부류의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알라존은 강자지만 우둔하고, 에이런은 약자지만 현명하다. 양자의 대결은 관객의 예상을 뒤엎고 약자인 에이런이 알라존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 묘비명

김광규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잣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시론>(김준오)에서 '역설'과 '반어'의 구분

---

아이러니는 순간 속에서 자아가 이중으로 나타나거나 분열되는 공시적 구조다. 대립되는 두 개의 퍼소나가 공존하는 동시성을 아이러니는 요구한다. 표면에 나타난 퍼소나의 시점을 가면으로 하여 **이면에 숨은 퍼소나가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이러니다.

아이러니의 경우 진술 자체에는 모순이 없으나 진술된 언어와 이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숨겨진 의미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반면 역설은 진술 자체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진술 자체가 모순이면서 그 속에 **진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역설이 된다.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 두달은  
길어둔 독엿물도 찌었지마는  
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  
살아서 살을 맞는 표적이외다

봄풀은 봄이 되면 돋아나지만  
나무는 밑그루를 꺾은 셈이요  
새라면 두 죽지가 상(傷)한 셈이라  
내 몸에 꽃필 날은 다시 없구나

밤마다 닭소리라 날이 첫시(時)면  
당신의 녀맛이로 나가볼때요  
그믐에 지는 달이 산(山)에 걸리면  
당신의 길신가리 차릴 때외다

세월은 물과 같이 흘러가지만  
가면서 함께 가자 하던 말씀은  
당신을 아주 잊던 말씀이지만  
죽기 전(前) 또 못잊을 말씀이외다

김소월, <님의 말씀>

## 진달내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약산(藥山)  
진달내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거름거름  
노힌그꼇출  
삼분히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 <진달래꽃>을 해석하는 방식

---

- ① 언어 진술 자체에는 아무런 모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기를 버리고 떠날 때의 그 정신적·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표면으로 나타나 있는 “고이 보내드리우리다”와는 다른 또 하나의 심리적 상태나 정반대의 행동이 예상이 된다. 즉 고이 보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문덕수)
- ② 저 유명한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죽어도’란 양칼진 어법 때문에 시 전체가 대번에 의미 깊은 것으로 소생한 듯하다. (...중략...) 이때의 ‘죽어도’란 말은 초인적인 의지와 전혀 그 반대인 한없는 자기 불신의 감정으로 떠받쳐져 있다. 의지의 표현인가 하면 패배감의 확인이기도 하고, 열등의식의 소산인가 하면 고도한 자기 우월감의 발현이기도 한다. 아이러니란 개념의 창을 통해서 보아도 김소월의 시는 역시 한국시의 우등생이 아닐 수 없다. (조남현)
- ③ 진달래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적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순되는 감정들에 의하여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이 시의 표면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가 전혀 반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논거로는 가령 시의 표면적 진술에서 ‘산화공덕’의 미덕을 보여 화자의 행위가 그 심층적 의미에서는 그와 반대로 님에게 원망과 저주를 보내는 행위로 해석되는 이 시의 양면성을 들 수 있다. (오세영)

역사(役事)를하노라고 땅을파다가 커다란돌을하나 꼬집어내여놓고보니  
도모지어데서인가 본듯한생각이들게 모양이생겼는데

목도(木徒)들이 그것을메고나가드니 어데다갖다버리고온모양이길래  
쫓아나가보니 위험(危險)하기짝이없는 큰길가드라.

그날밤에 한소나기하얏으니 필시(必是)그돌이깨끗이씻겼을터인데  
그이튿날가보니까 변괴(變怪)로다 간데온데없드라.

어떤돌이와서 그돌을업어갔을까  
나는참이런처량(淒涼)한생각에서아래와같은작문(作文)을지엿도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든 그대여  
내한평생(平生)에 차마 그대를 잊을수없소이다.

내차례에 못올사랑인줄은 알면서도  
나혼자는 꾸준히생각하리다.

자그러면 내내어여쁘소서」

어떤돌이 내얼굴을 물끄러미 치여다보는것만같아서  
이런시(詩)는그만찢어버리고싶드라

# 권혁웅이 제안하는 ‘반어’의 정의

---

- ①역설은 반어의 하위 개념이다. 역설이 체계의 차원으로 전환되면 반어가 된다. 따라서 구조적 역설(혹은 이른바 시적 역설)은 모두 반어이며, 표면적 반어는 모두 역설이다.
- ②유비가 비유 전체를 통괄하는 체계적인 사유의 소산이라면, 반어는 대조적이거나 변증법적인 사유의 소산이다. 다시 말해 반어는 모든 비유적 구조의 맞짝(counterpart)을 이루는 반.
- ③반어는 사유의 운동에서 언어 형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출현하지만, 그 자체가 시적 사고(혹은 어조)의 기본 형식은 아니다. 반어는 구조화된 형식의 반(anti)형식으로서만 출현한다.
- ④합목적적으로 배치된 대상들은 단일한 어조의 주체를 낳는다. 반면 변증법적으로 배치된 대상들은 이중화, 삼중화된 어조를 가진 주체를 낳는다. 후자의 주체는 표면적 주체와 이면적 주체로 분열된 주체이며, 반어는 이 **주체의 분열 양상에 붙여진 이름**이다.

늙은네들만 모여앉은 오후 세시의 탑골공원  
공중변소에 들어서다 클클, 연지를  
새악시처럼 바르고 있는 할마시 둘  
조각난 거울에 얼굴을 서로 들이밀며  
클클, 머리를 매만져주며  
그 영감탱이 꼬리를 치잖여 징그러바서,  
높은 음표로 경쾌하게  
날아가는 징 · 그 · 러 · 바 · 서,  
거죽이 해진 분첩을 열어  
코티분을 꼭꼭 찍어바른다  
봄날 오후 세시의 탑골공원이  
꽃잎을 찍어 놓은 젖유리창에 어롱어롱,  
젊은 나도 백여시처럼 클클 웃는다  
엉덩이를 까고 앉아  
문밖에서 도란거리는 소리 오래도록 듣는다  
바람난 어여쁜, 엄마가 보고 싶다

김선우, <봄날 오후>

## 찢어지다, 또 찢어지다 - 서울

고형렬

고양이 얼굴만 했다. 고막이 터져 남의 나라 처마 아래 계단이 되어있다. 비바람을 받은 몸은 풍향계가 되었다. 종아리와 입술이 터진 채, 음식점 문 앞에 죽은 듯 앉아, 낮이 되면 누군가 부축해 데려간다, 그는 곧 늑대가 되다가 쥐가 되다가 다 그만둔다.

창을 내다본다, 부러진 손가락이 아코디언을 잡고 있다. 자신이 눈 감는 걸 사람들 어깨 사이로 보여준다. 우리가 다 잊은 그 옛날 백거이의 다 저녁 비파행은 아니다. 서울이다. 무서운 저녁이 온다.

핏빛 저녁은 불행의 길로 이어진다. 그는 며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꽃샘 기침처럼 일산화탄소가 뛰어 나왔다. 그는 길에서 그것을 슬픔처럼 깊이깊이 마셨다.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는 메뚜기처럼 작아졌다. 죽음도 해학이 되었다. 지하철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 아이러니의 유형

	언어적 아이러니	구조적 아이러니
텍스트 내적 진술	모순형용의 아이러니 (이미지와 비유 차원의 긴장성)	극적 전환의 아이러니 (사건과 구조 차원의 반 전성)
텍스트 외적 맥락	반대진술로서의 아이러니 (어조와 화법 차원의 대 조성)	시적 진실로서의 아이러니 (의미와 인식 차원의 역 설성)



푸른 하늘을 제압(制壓)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修正)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飛翔)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있는가를  
혁명(革命)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革命)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아이들은 먼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

황지우

그렇게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해도  
그래서 스위치 꼭지를 빼어 감춰버렸는데도  
아이들은 어느새  
앉아서  
TV를 선(禪)하고 있다  
TELEVISION

꿈꿀 수 없는 날의 답답함

최승자

나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었다  
아니 떨어지고 있었다

한없이

한없이

한없이

.....

.....

...

아 쌍! (왜 안 떨어지지?)

## 모순

한용운

좋은 달은 이울기 쉽고  
아름다운 꽃엔 풍우(風雨)가 많다.  
그것을 모순이라 하는가.

어진 이는 만월(滿月)을 경계하고  
시인은 낙화를 찬미하느니  
그것은 모순의 모순이다.

모순이 모순이라면  
모순의 모순은 비모순(非矛盾)이다.  
모순이냐 비모순이냐  
모순은 존재가 아니고 주관적이다.

모순의 속에서 비모순을 찾는 가련한 인생  
모순은 사람을 모순이라 하느니 아는가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우리 집의 문 또한 그렇지만  
어느 집의 문이나  
문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잘 열리고 닫힌다는 보장이 없듯

문은 열려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라는  
확증이 없듯

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  
또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어느 집에서나 문이 있다

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잡는다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 다른 모양으로  
자리잡기는 잡았지만  
담이나 벽이 되지 말라는 법이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규원, <문>

그렇게 슬퍼? 광복 70주년 기념 프로그램에서  
송례문이 불타고 있었다.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그는 콧물을 손바닥으로  
문지른다.

우리나라 국보 1호인데 가슴이 미어진다며 운다.

나는 키즈 과학체험을 보며 운다. 소의 배에  
구멍을 뚫고 아이들에게

손을 넣게 한다. 소야. 커다란 눈을 껌뻑이는 소야.

아이들이 배에서 꺼낸 곤죽이 된 음식물을 허연  
침을 뚝뚝 흘리면서 핏는 소야.

나는 콧물을 풀고 눈물을 닦으며 티브이를 본다.

지금은 긴급속보에서 카트만두가 무너지고 있다.

사망자가 팔백 명이라더니 내가 이 시를 쓰는 동안  
사천 명으로 늘었다.

왜 울지 않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는  
눈물이 안 난다고 한다.

티브이에서 본 비극을 모아 나는 지금 시를  
방영한다.

뛰어난 인류를 상상한 독재자가 학살을 만든  
다큐를 보았고

머리채를 잡힌 여자가 중심가를 질질 끌려가며  
죽어갔고



수백의 사람들이 구경만 했다는 뉴스를 감자칩을 먹으며 메모했다.

잔재 아래에서 울음소리가 올라온다. 이름이 뭐예요? 대답하세요. 구조대 올 거예요.

말을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나는 티브이에게 말을 시킨다.

깜박깜박 졸음에 빠지는 티브이를 깨운다.

나는 티브이 속으로 들어간다. 차벽 너머의 그를 만난다.

우리는 마주보고 있다. 이곳은 마주보는 것을 대치 중이라 한다.

이 차벽 너머에서 그가 등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등을 돌려야만 같은 티브이를 볼 수 있다. 나는 뒤를 돌아본다.

임솔아, <티브이>

# 참고문헌

---

김남희, <현대시 교육에서 시론의 위치>,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남정희, <역설과 반어>, 《반교어문연구》 11, 반교어문학회, 2000.

정끝별, <한국 현대시의 포스트모더니즘 아이러니 양상>, 《한국시학연구》 55, 한국시학회, 2018.

\_\_\_\_\_, <현대시 아이러니 교육에 관한 시학적 검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김준로, 《시론》(제4판), 삼지원, 2002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